

**KAL, 단일통로형기 구매
MD-82등 노후기 대체**

대한항공이 F-100을 비롯, MD-82/83등 노후기를 대체하기 위해 약 40대의 단일통로형기의 구매를 예정보다 빨리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의 Flight International지가 보도했다.

동지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기종선정에 대한 평가작업을 수행중이며 기종을 당초 계획된 1998년 말에서 올해 안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쟁업체는 미국의 보잉사와 유럽의 에어버스로 대한항공은 180석규모의 단일통로기 40대 (25대 확정주문 15대 옵션 혹은 30대 확정주문 10대옵션)의 가격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2000년-2002년까지 항공기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보잉사는 737-800기종을, 에어버스는 A321기종을 각각 제안하고 있다. 엔진은 보잉 737용의 CFM International 사 CFM56-7 이나 A321용의 CFM-56-5 혹은International Aero Engine사의 V2500에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동지는 전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12대의 포커 100, 11대의 MD-82 그리고 3대의 MD-83의 판매를 원하고 있

다. 포커100은 약 2년-5년간 운항하여 상대적으로 신형이며 MD-82의 경우 1985년부터 인도가 된 반면, MD-83은 1996년 첫 서비스가 시작됐다.

이번 단일통로형기 구매계획은 대한항공의 노후기 대체사업의 한 부분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한항공은 이미 보잉 727 12대와 DC-10 3대등 노후기를 처분한 바 있다.

**獨 루프트한자,
70석급 구매 협상
봄바르디어사가 가장 유력**

독일의 루프트한자 시티라인 (Lufthansa Cityline)사는 현재 캐나다의 봄바르디어 (Bombardier)사와 "00대"의 지역간 항공기 구매를 위해 협상중이다. 고려되고 있는 기종은 70석급 CRJ 시리즈 700이다. 한편, 페어차일드 도니어 (Fairchild Dornier), AI(R)사 등도 협상을 희망하고 있다.

시티라인사는 31번째로 50석급 CRJ기종을 도입, 총 200대의 항공기를 구매한 바 있다. 동사는 그동안 CRJ-700의 자문패널로 개발단계부터 봄바르디어사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점을 주목, 동 기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 최근 공개한

CRJ-700의 내부 인테리어 목업 (mock up)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몇 대를 주문할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으나 최소 두 자리 숫자는 기록할 것으로 시티라인사는 고려하고 있다.

한편, 70석급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는 다른 업체의 경쟁도 치열하다. 페어차일드 도니어사의 경우 루프트한자에 70-90석급 728JET/928JET기종을 제안했다. 페어차일드에 의하면 오는 1998년 4월경 두 기종 중 하나를 최종개발기종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AI(R)사는 동사의 AI(R) 제트 프로그램에 페어차일드 도니어사를 비롯, 엠브레어사의 참여를 협상중이라고 언급, AI(R)-70기종의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 프로그램의 지연으로 타사의 인도시기를 따라잡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양사는 일단 봄바르디어사와는 경쟁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AI(R)사의 경우 페어차일드 도니어사는 같은 클래스의 공동개발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며 엠브레어사도 사업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공동개발참여는 반대하고 있다.

북한, 항공관제장비 업그레이드

북한은 국제 항공노선에 대비, 항공교통제어시스템 장비의 1차 업그레이드를 금년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북한은 현재 4개 공항의 통신 장비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중인데 이에 필요한 자금은 북한상공을 지나갈 항공사 및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선사업은 노르웨이의 신 VHF 장비, 마트라 마르코니사의 위성 접시, 전원장치 등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2차 업그레이드 사업은 내년 8월 경에 추진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몇 개의 콘솔(console) 및 항공교통운영장비 등이 포함되는데 북한의 경제개발지구인 선봉지역 공항의 관제장비도 개선될 계획이다.

항공노선과 관련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중계로 한국과 북한간에 체결된 합의는 한국의 대구와 북한의 평양지역간 항공기 영공통과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평양지역의 영공통과는 1998년 3월경 일주일간의 시험운항기간을 거쳐 다음달인 4월 23일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시험운항할 항공사는 대한항공을 비롯, 캐세이 퍼시픽, 델타항공, 노스웨스트 항공 등이다.

한편, 북한은 현재 2개의 영공 통과지역을 허가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미국운항 항공기에만 국한되어 있다.

에어버스사 총 생산대수 2천500대 초과

최근 에어버스사는 실크에어사와 A320 패밀리 기종 8대 판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총 확정주문 생산대수가 2천5백대를 초과했다. 이에 따라 에어버스사는 지난 72년 10월 처음 설립한 이래 25년만에 총 확정주문대수가 (전세계 1백41개국)가 2천5백대에 이르고 있다.

기종별로는 A319, A320, A321기종이 1천3백49대 와 A330, A340기종이 4백9대 등이다. 이 기간중에 에어버스사가 인도한 항공기대수는 총 8백88억 달러 규모인 1천6백32대이다. 특히 경쟁이 심한 2백50~3백50인 승 부문에서 A330, A340 기종이 아직 시장선두를 유지하고 있으며, A330, A340 기종이 이미 고객사에 인도됐고 전세계 30개 항공사들이 운항하고 있다.

올해 10개월동안 에어버스사는 A319, A320, A321 기종 2백17대, A300, A310 기종 7대 및 A330, A340 기종 68대를 포함해 총2백92대의 주문을 받았다.



평양지역의 제어센터는 이미 장비개선을 완료했다.